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

미내사 클럽

• 발행 : 이원규 • 편집 : 김경덕 • 전화 : 02) 747-2261~2 • 팩스 : 0504) 200-7261
• 이메일 : cpo@herenow.co.kr • 홈페이지 : www.herenow.co.kr
• 홀로스 공동체 : www.beherenow.kr • 카카오톡 ID : minaisa1996

미내사 소식

2020년 9/10월

| 발행인의 말 |

호르몬적 자아강화 시스템을 넘어

어떤 목표를 성취하거나 성취를 위해 달려갈 때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을 좋게 한다. 여기서 '나는 성취할 수 있다, 성취했다'는 자아自我가 강화된다. 그 과정에서 러너스 하이runner's high처럼 힘들고 괴로운데도 멈추지 않으면, **엔돌핀**이 나오면서 희열을 느끼고 고통을 넘어가게 한다. 이 과정을 겪으면 강렬한 자아가 형성된다. **세로토닌**은 자아가 인정받았을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음으로 자긍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 역시 자아강화이다.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은 애정을 가지고 대하거나 상대를 위해줄 때 나오는 것으로, 상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역시 자아강화를 이룬다.

이와 같이 특정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호르몬 체계와 더불어 자아강화 시스템을 공고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나'란 단순한 마음의 일이 아니다. 몸-호르몬-에너지-마음이라는 하나의 체계이다. 그러면 무위無爲의 사람은 이 체계가 어떻게 작용할까?

이제 그에게서 도파민은, 목표를 이루어야만 나오지 않는다. **매순간이 목표**이고 매 순간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엔돌핀에 대해서는 이 순간 그 무언가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상황에 최선의 에너지를 내어 대하기에 이루어야 할 목표에만 정성이 나가지 않고 모든 사소한 일상에도 정성이 나아간다. 세로토닌 역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늘 나올 수 있다. 그는 스스로를 이미 인정하기 때문이다. 더이상 그 **누구의 인정이 필요없게 되었다**. 너와 나의 분리도 의미가 없어졌기에 너를 사랑하는 상황에서만 옥시토신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저 나무와 상대를 사랑한다. 다가오는 그 누구에게나 깊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

- 越因



지금여기 25-5호 (2020년 9/10월호)가 나왔습니다

해결책은 우리 안에 있다 _ 웨인 다이어 | '그것'을 말하다(13부) _ 니르말라 | 얇의 요가 (2부) _ 제리 슈와츠 | '깨닫는 힘'을 키우자 _ 후지이 히데오 | 의사 결정의 감정 _ 에릭 R. 캔델 | 상상의 힘 _ 에밀 쿠에 | 뇌의 카오스적 구조 _ 김상일 | 활성화산소: 노화와 질병의 주범 _ 츠루미 다카후미 | 보편적 기본소득 _ 엘렌 브라운 | 릭 몽타니에의 비입자적 생명관 _ 로렌스 헉트 | 김홍호 선생의 '기독교 경전강의' (65) **금강Diamond의 도** | 월인 칼럼 대승기신론 (29) 능견能見, 보는 마음이 분별하여 세계를 형성한다 | 시 : 사이에서 피는 꽃 _ 이병창 |

25차 백일학교가 시작됩니다

11월 1일부터 제25차 백일학교가 시작됩니다. 백일학교에서는 끊임없는 일깨움과 힌트를 주는 안내자와의 생활을 통해 스스로 해내기 힘든 깨어있는 삶에 대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몸, 마음에 그 삶이 ‘배이도록’ 하면 이제 일상에서도 관성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3인 한정이므로 관심있는 분께서는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커리큘럼은 12쪽을 참고해주세요.

깨어있기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64차 깨어있기 기초과정과 63차 깨어있기 심화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깨어있기 과정을 통해 내가 ‘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맛보게 될 것이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나’라는 패턴에서 벗어나 그 패턴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리’에 자신이 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심화과정은 9월 18일부터, 다음번 기초과정은 10월 16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가신청 바랍니다. 상세 커리큘럼은 12쪽과 13쪽을 참고해주세요.



63차 깨어있기 심화 (7/17-19)



64차 깨어있기 기초 (8/14-16)

14차, 15차 깨어있기 마스터그룹 서울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 14차 모임에서는 “내가 있음’ 느끼기’를 공부했습니다. ‘내가 있다’라는 느낌을 찾아서 느껴보고, 다음으로 좀더 근본적인 ‘있음’을 충분히 느껴본 후 이제 느끼는 것이 아닌 ‘있음’의 상태로 깊숙이 있어보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분리되었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해서 분리 없이 그냥 그것으로 있어보는 경험,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물이 빛이 있어야 드러날 수 있듯이 그 ‘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 너머’를 잠깐이나마 알아채볼 수 있었습니다.



14차 마스터모임 (7/11-12)



15차 마스터모임 (8/8-9)

8월 모임에서는 ‘기억으로서의 나를 넘어가기’를 공부했습니다. ‘나’라는 느낌을 구별하고 찾아서 그것이 하나의 ‘기억’임을 알아차리고 그 기억으로서의 ‘나’를 내려놓고 순수한 ‘있음’을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차, 4차 깨어있기 청년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 3차 깨어있기 청년모임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느낌’의 세계이며, 이 분별되는 느낌의 세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낌을 느낌으로 보면 우리 삶의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3차 청년모임 (7/11)

8월 모임부터는 느끼기 실습으로, 감각과 감지에 대해 살펴보고 체험하였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며, 우리는 바로 그런 상대적인 느낌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실험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상대적 느낌의 세계이므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상대적 느낌이라는 것을 앎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참고자료로 사용할 뿐 그것에 매몰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임은 매월 첫째 혹은 둘째주 토요일에 진행되니 관심 있는 35세 이하 청년들은 신청 바랍니다.

미내사와 홀로스 연구소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일 박영래 2만원 | 7월 7일 해연 10만원 | 7월 9일 류창형 1만원 | 7월 10일 선호 1만원 | 7월 27일 다르마 10만원 | 7월 27일 장경옥 2만원 | 8월 3일 박영래 2만원 | 8월 3일 호요 10만원 | 8월 10일 선호 1만원 | 8월 10일 류창형 1만원 | 8월 14일 박진희 5만원 | 8월 24일 반여 5만원 | 8월 25일 다르마 10만원

사진으로 보는 홀로스공동체 활동



보리수관 장서 정리



무밭 갈고 씨뿌릴 준비



생일 파티



입구 낙엽 쓸기



수국 돌보기



잔디 깎기



잠자리와 소통하기



앵두관에서



잠자리를 손 안에



한낮의 여유



청향관에서 캠프

21차 통찰력게임 마스터교육이 열립니다

10월 30일(금)부터 2박 3일간, 미내사 함양연수원에서 21차 통찰력게임 마스터교육이 진행됩니다. 통찰력게임 마스터란 시범게임(3시간)과 워크숍(이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안내자를 말합니다. 숙련된 마스터는 심사를 거쳐 딜러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참가자격은 통찰력게임 안내자교육 이수자입니다. 본 과정에 대한 상세 안내는 14쪽을 참고해주세요.



32차 통찰력게임 안내자교육 레벨 III이 10월 24일에 진행됩니다

지난 8월 22일에 31차 통찰력게임 안내자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통찰력게임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미세하게 올라오는 무의식적 신호를 알아채고 통찰로 이어지게 하며, 생명력을 통해 그 통찰을 실현시킬 힘을 얻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내자는, 게임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를 그대로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 되며, 이 과정을 통해 '나'라는 것이 의식이라는 작은 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무한하고 거대한 존재의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통찰력게임 안내자에 도전해보십시오. 다음 32차 교육은 10월 24일에 열립니다. 상세 안내는 13쪽과 14쪽을 참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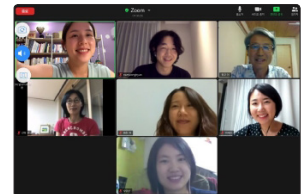


32차 통찰력게임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 26일, 27일 양일간 함양연수원에서 이원규 그랜드마스터의 안내로 통찰력게임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참가자 후기를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찰력게임 소식지 함께 읽기 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홍성향 통찰력게임 마스터가 주축이 되어 원격으로 진행해온 '통찰력게임 소식지 읽기 모임'이 8월 2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깊은 관심으로 함께하는 모임이어서 좋았습니다. 게임을 통해 사람을 도우려는 열정을 보았고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을 이끈 홍성향 마스터의 후기를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진행된 시범게임



안내: 오경아 딜러. 7/15일,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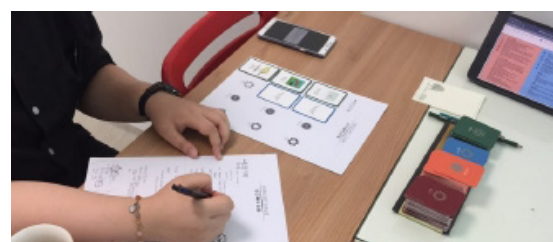
안내: 오경아 딜러. 7/25일, 서울



안내: 이세민 딜러. 7/24일,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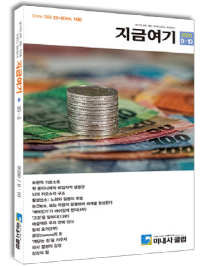


안내: 이세민 딜러. 8/14일, 부산



안내: 차화진 딜러. 8/26일, 순천

지금여기 이번 호 훑어보기



금강Diamond의 도 김홍호

가장 강한 강한 것은 금강석입니다. 일체를 금강석으로 만드는 힘, 일체를 불로 만드는 원시화, 이 불길을 피할 물건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도 사람도 천사도 심지어 악마까지도 이 사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저자 주)

능견能見,

보는 마음이 분별하여 세계를 형성한다 월인

보통 사물을 볼 때, 밖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그 사물의 흔적을 본다는 것을 알아채 보세요. 눈이 사물을 감각하듯이, 마음의 흔적인 느낌을 감각하는데 이때 의식적 감각기관인 의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의의를 사용해 알게 된 것, 그것을 의식意識이라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마음이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형성합니다(저자 주).

해결책은 우리 안에 있다 웨인 다이어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해결책도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해결책이 외부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밖에서 찾는 걸 그만두어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저자주).

‘그것’을 말하다(13부) 니르말라

모든 경험은 비구름처럼 지나가고 그 뒤엔 끝없는 자각이라는 신선하고 열린 공간이 남습니다. 자각의 근원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여기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자각 안에

서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자각 안에는 개별적인 ‘당신’라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자각의 근원이니깐요.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저자 주).

‘깨닫는 힘’을 키우자 후지이 히데오

지금 여기의 현실을 실시간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과, 그렇게 인식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깨닫는 힘이 세진다는 것을 쉽고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의사 결정의 감정 에릭 R. 캔델

뇌수술 후 지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된 사례를 들면서, 감정이 없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도 훼손됨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상상의 힘 에밀 쿠에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의지가 아니라 상상의 힘이며, 그 힘을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암시를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활성산소: 노화와 질병의 주범 츠루미 다카후미

항산화를 말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활성산소. 지금은 누구나 한번씩은 들어봤을 명칭이지만 그 존재가 막 알려지기 시작한 1980년대에만 해도 산소의 독성을 인지하지 못해 미숙아 치료에서 갓난아기들을 실명에 이르기 한 비극도 있었다고 합니다. 활성산소의 발생 원인과 종류, 그리고 노화를 비롯한 폐해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에 대해 알면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편집자 주).



지금여기 이번 호 주요기사 미리보기



삶의 요가 (2부) 제리 슈왈츠

이 글은 요가의 다섯가지 층에 대해 잘 설명해주며 특히 영원한 자각과 지복이라는 것 역시 이원성에 동일시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배고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기에 그것은 육체와 동일시된 경험입니다. 또 ‘나는 화가 난다,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재는 감정체가 아니기에 그것은 감정체와 동일시된 경험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또는 안다’라고 한다면 실재는 지성체가 아니기에 그 앎은 지성체와의 동일시된 경험입니다. ‘나는 영원한 지복이며 무한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과 지복이라는 이원적인 특성과 동일시된 경험이기에 여전히 실재가 아닙니다. 이 모든 동일시에서 벗어날 때 드디어 진정한 자아의 실재에 이르게 됨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베단타의 정수는 자각awareness으로서의 당신을 지바Jiva, 이스바라Isvara와 구별하는 것이다. 그 구별을 이해하는것이 해탈이다. 문헌에서 지바(아트마atma · 소아小我)와 이스바라(브라흐마brahman)와 자아(파라마트마paramatma · 대아大我)라는 용어의 쓰임이 혼란스러운 면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선 이들 용어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각으로서의 당신이 지바 및 이스바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리하다.

현실은, 비록 하나이지만,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현상화된 개인 혹은 지바, ‘소아小我’, 자각과 정묘체Subtle Body가 합쳐진 것. 이것은 경험적인 실체다.

(2) 원인체Causal Body. 마야, 거시적 무지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스바라Isvara라고도 한다. 마야와 결부된 순수 자각인 이스바라에 의해 다르마dharma 영역이 생겨난다. 이스바라는 경험하는 실체들과 그 실체들의 경험대상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다. 베단타는 이스바라를 비현현the Unmanifest라고 부른다. 경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바라는 추론에 의해 알 수 있다.

(3)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아는 자. 순수 자각pure awareness, 자아the self.

지바와 이스바라는 둘 다 자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띤다. 그러나 둘 다 창조는 하지 못한다. 창조는 의식적인 과정이며 의식적인 과정은 반드시 의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탐구의 과정에서 지바와 이스바라는 모두 자각에 녹아든다. 개인적인 지바의 수명에 비해 이스바라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긴 하나, 둘 다 영구적이진 않기 때문이다. 자각은 ‘영구적’이므로 사라지지 않는다. 영구적/비영구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좋지 않다. 이원성을 암시하고, 경험하는 지바들을 경험 대상들과 구분 짓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탈과 자유에 이르기 위한 식별력을 키우려면 그런 류의 단어가 필요하다. 자각은 지바와 이스바라보다 우선하고, 정묘체와 원인체보다 우선하며, 이들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므로 모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오직 하나(또는 자각)만이 존재하며, 그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나고 모든 것이 그 안으로 사라진다.

비영구적이라는 단어에 문제를 느낀다면, 또 다른 이원적인 말인 가변적/불변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스바라와 지바는 가변적이고, 자각은 불변적이다. 이스바라는 창조와 관련해서만 존재하며 창조물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지바는 미시적 차원에서만 존재하며, 깨어있는 자와 꿈꾸는 자, 깊이 잠든 자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한,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규명해주는 네 구절은 다음과 같다:

두 개의 자아-소멸하는 자아, 불멸하는 자아-가 세상에 존재한다.

의식적인 존재와 물질은 소멸하고, 비현현the Unmanifest은 불멸한다. 그러나 이 두 자아를 넘어서는 자아Self가 있으니, 바로 제한 없는 불변의 자각이며, 이 자아Self는 세 가지 세계로 들어가 그 세계들을 지탱한다. 그러므로 나(자각)는 지고의 존재로 인식된다. 이런 식으로 나를 안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두의 자아가 된다.

바가바드 기타 15장 16~19절

그 의미는 이리하다. 겉으로 드러난 자아(즉, 지바)는 항존하지 않고 늘 변화하므로 실재가 아니다(깊은 잠을 생각해보라). 지바는 언뜻 보기에 의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의식적이지 않다. 그것은 마야/무지에 의해 변형되고 소멸된다. 현상화된 실재에서 지바의 수명은 매우 짧기 때문이다. 해탈이란, 정묘체와 동일시된 지바의 본질을 이루는 개념, 즉 행위자와 소유자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동일시된 지바를 인간 혹은 개인이라고도 한다. 일단 본성에 대한 무지가 제거되면, 개인은 현상화된 실재에서 계속 존재하더라도 자아가 더 이상 무지에 휘둘리지 않으므로, 제한적이고 부적절하며 불완전하다는 개념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진다. 자아는 자신이 이름 없고 형태도 없는 무조건적인 자각임을 알고 있다.

마야와 연관된 이스바라는 의식적이며, (하지만 구절 중에서 ‘지고의 존재’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지바는 아니다) 무지/마야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바라도 자각에 의존한다. 이스바라는 의식적이다. 왜냐하면 마야가 드러날 때 자각이 의식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바라는 자각 안에서 항존하지만 자각에 따라 현상화되기도 하고 현상화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마야와 연관된 이스바라도 실재는 아니다. 마야와 연관된 이스바라는, 지바와 지바가 경험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영구적이지만, 자각에 관해서는 비영구적이다. 마야와 연관된 이스바라가 지바와 관련해 영원하다는 말뜻은, 이스바라가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다. 무지나 마야가 자각의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고 또 창조의 주기가 끝나면 다시 자각 안으로 용해되기 때문이다. 이스바라는 그저, 자각의 창조하는 힘이다. 마야로부터 자유로운 이스바라와, 마야와 연관된 이스바라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개인과 그 개인의 힘이 같지 않다는 점에서 한 개인과 유사하다. 이스바라는 권력을 휘두르는 쪽이다. 예를 들어, 예술가는 그의 예술적인 혼수와, 그가 하는 예술행위보다 크다.

마야는 영속한다. 왜냐하면 마야는 자각 안에 존재하는 힘인데, 자각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마야는 시작이 없다(anadi)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자아가 인식되면 육화(incarnation)와 고통의 순환이 멈추면서 개인적인 무지(avidya)가 끝나지만, 마야(또는 우주적 무지)는 변함없이 지속된다. 물론, 항상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무지 혹은 마야가 드러날 때, 이스바라도 창조자의 역량을 갖고 나타나며, 뒤이어 창조가 일어난다. 즉 지각 있는 존재들과 지각 없는 요소들로 이뤄진 세계가 나타난다.

마야와 연관 없는, 순수 자각으로서의 이스바라는 파라마트만(Paramatman)으로 불린다. 베단타를 공부하거나

베다 문학에 익숙한 사람은 이스바라라는 단어가 종종 파라마트마(Paramatma, 창조되지 않은 비이원적 자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파라마트마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파라마트마는 영원하고 불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영원과 불멸은 영원하지 않음과 소멸을 내포하는 이원적이지만, 파라마트마는 비이원적이기 때문에 영원불멸마저 아닌 것이다. 파라마트마는 있음(beingness, being)이다. 파라마트마는 스스로를 알며, 대상이 나타나면 어떤 대상이라도 다 안다. 파라마트마는 지바와 이스바라에 우선하고, 지바와 이스바라를 아는 자이다. 파라마트마는 특정한 무엇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현상화된 개체인 지바는 현상화된 실재 속에서 몸을 갖고 있는 한, 깨달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창조자 이스바라에 의해 조건화된다. 이원성의 세계에 살고 있어도 해방된 사람(지반묵타(jivanmukta)은 지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바는 텅텅빈 것일 뿐, 구나(gunas)인 이스바라가 행위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가 깨달음(moksha)이라면, 그 이해에 이르기 위한 카르마 요가 수행법(사다나(sadhana)은 이제 떨어져 나간다. 그래도 카르마 요가의 태도는 남아 있다. (후략. 자세한 내용은 지금여기 9/10월호 참조).

뇌의 카오스적 구조 김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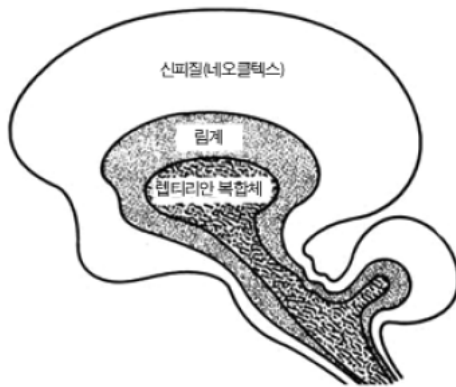
이상적인 선은 고피질과 신피질이 서로 조화하고 화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합이란 곧 혼돈과의 조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문명은 혼돈 자체를 제거시켜 보려고 애써 왔었다. 앞으로는 혼돈과의 화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학의 분야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카오스의 등장과 그 이론의 응용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다(저자 주).

20세기 과학의 가장 지진 한 미개척 분야가 바로 인간 두뇌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 그대로 두뇌는 그 자체가 사고와 의지 그리고 감정을 좌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두뇌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밀수꾼이 상품을 밀수하는데 막상 상품을 실어 나르는 나귀 자체가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세관이 모르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놀랄게도 인간이 두뇌로 사고함에도 불구하고 두뇌 자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폴 맥클린 Paul MacLean 박사가 지적한 대로, “인간 두뇌에 대한 관심은 인간이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호기심 이외의 어떤 정당성도 요구하지 않는다”와 같다. 그러면서 감정의 흐름, 사고의 흐름 그리고 사고와 감정의 관계는 두뇌 생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 두뇌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그 전개 과정과 단계가 인간의 계통발생 과정과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즉, 두뇌 발달과정에서 인류 문명이 진화해 나온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오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쌓아온 두뇌의 구조를 맥클린은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단계는 파충류의 두뇌 단계로, 파충류 동물들의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작용이 이 두뇌에서 일어난다. 공격적이며 야수적인 행동이 반복되며 이런 작용을 하는 곳이 두뇌의 가장 낮은 층에 있는 파충류층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본능의 세계 같은 곳 아니면 그것보다 더 밑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파충류층에 해당된다. 그 위의 두번째 단계가 포유동물층이다. 포유동물이 지니는 애타적인 행동, 집단행동의 형성, 우애관계, 공동체의 유대감 형성 같은 것이 모두 포유동물층에서 일어난다. 파충류층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반면에 포유동물층은 이타적인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영장류적 특징으로서 언어사용, 수학, 기호사용, 종합분석능력, 예측력과 판단력 같은 특징을 이 층이 지니고 있다.



뇌의 3층 구조: 의식은 3층 구조인 동시에 문명의 3층 구조이다.
파충류층, 포유류층, 영장류층이 바로 그것이다

두뇌의 아래 두 층은 언어적 능력이 있지 않으며, 이 세 개의 두뇌는 상호연결된 생물적 컴퓨터에 비유될 수 있다. 감각의 두뇌는 특유한 기능과 주체성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 기억능력, 운동능력을 지니고 있다. 맥클린에

의하면 두뇌는 각기 별개의 진화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세 개의 두뇌는 신경해부학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구별되며 이 세 개의 두뇌 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 문명이 진화해 나오는 동안, 위의 신피질층이 밑의 파충류층을 억압한 것에 문명사적 병폐가 생겼다. 덕천역포 사람에게서는 아직 고등신경계, 즉 제3층의 두께가 나타나기는 했어도 언어라든지 합리적 사고기능이 엿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검은모루유적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등신경계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던 인간들의 의식층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보편사적 관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통발생과정은 태아가 모태에서 생겨 자라 나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하다. 즉 물고기와 파충류 단계 그리고 포유류, 두뇌, 영장류단계로 자라 나가는 과정이 분명하다. 잉태 3주까지는 뇌가 물고기의 아가미와 유사한데, 그것은 인간이 태초에 의하여 영양소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가미가 어류 시절의 우리 조상에게는 생명유지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에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명의 진보는 파충류와 포유류층을 억압하거나 무시함이 없이 나아가야 한다. 세이건도 적절하게, “미래는 우리 존재 가운데의 파충류와 포유류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우리 본성인 인간적인 특성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기약해야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 사회는 순응보다는 다양성을 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양문명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낮은 층에 대한 억압과 함께 발전되어 나왔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腦’ 자의 모양을 보면 우측 상부에 있는 모양은 좌우 뇌와 상하 삼층 구조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그 아래는 신경망을 나타낸다고 보면 될 것이다.

동물 의식 속에도 혼돈이 있는가? 뱀이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는 본능이 명하는 대로 살아도 절대로 규칙을 어기는 법이 없다. 어떤 면에서 환경 적응의 정확도는 인간보다 동물이 훨씬 월등하다. 뱀이나 개구리나 물고기는 본능대로 잘 살아가면서도 갈등이 없는데, 같은 동물인 인간만이 왜 이렇게 모호성 투성이고 혼돈이 많은가?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같은 종을 그렇게도 많이 살해하고 죽이는가? 그것도 신피질에 나타난 이념과 신같은 고상한 이름으로 말이다.

일본 대뇌생리학의 권위자인 도키사네時更의 말의 의하면...(후략. 자세한 내용은 지금여기 9/10월호를 참조).

보편적 기본소득 엘렌 브라운

돈은 실물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매개물입니다. 그래서 돈은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소비자/생산자 경제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은 채 '수익'을 좇는 금융경제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경제는 근본적으로 실제경제의 기생충이고, 이 시스템 내의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돈이 부족한 이 시기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풀어 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는 한, 보편적 기본소득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얻는 배당금과 비슷한 추가 수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생산적이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주기적인 불황을 방지하여 부채격차를 줄일 수 있다.

CNBC.com의 4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스페인이 유럽 최초로 장기적인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페인 경제부총리는 모든 국민에게 '영원히' 기본 임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빨리'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런던대학교 연구교수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보편적 기본소득 없이 세계경제는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CNBC에 말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어떠한 종류의 기본 소득 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 돈을 어디서 찾아낼 건데요?"라는 질문은 시민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 제공에 더 이상 타당한 반대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월스트리트와 재계에 투입한 5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을 발견한 바로 그 장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CARES 법을 근거로 1조 7천 7백억 달러를 월가에 투입한 것에 대한 4월 9일자 논평에서 올프 릭터Wolf Richter는 "만약 연방준비제도에서 1조 7천 7백억 달러를 1억 3천만 미국 전체 가정에 나눠줬다면, 가구당 1만 3600 달러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오직 월스트리트와 주주들을 위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였다."라고 말했다.

'헬리콥터 머니'란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서 시중에 공급하는 것인데, 기반시설 건설, 국가인프라&개발은행

출자, 학비가 무료인 주립대 보조,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자금조달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의 강제 설타운으로 인해 대공황 이후 어느 때보다도 가계가 취약해진 현 위기 상황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달러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문 전문가 마이크 멀로니Mike Maloney는 4월 16일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불만을 제기했다.

"컴퓨터에 숫자를 좀 더 입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발행해서 모두에게 영구적으로 주겠다는 미친 이론이 실행된다면 당신 주머니에 있는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지 누가 설명해주면 좋겠다."

나는 이 분야에 관해 연구를 좀 했었기에, 모험을 강행하기로 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다.

먼저, 현대 금융의 기초를 보자. 우리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은행에 의해 매일 돈이 만들어지고 파괴되는 신용제도를 가지고 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예치금 행태로 돈이 만들어지고, 대출금이 상환되면 그 돈은 사라진다. 여기 영국은행의 자세한 설명이 있다. 상환된 돈보다 대출로 만들어진 돈이 적으면, 통화 공급량이 위축되고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디플레이션은 불황을 일으킨다. '헬리콥터 머니'라는 용어는 이 무서운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디플레이션은 해결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냥 돈을 찍어내서 비처럼 헬리콥터에서 뿌리면 된다는 것이다.

통화량은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 때문에 만성적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 은행은 원금만 만들지, 대출금을 갚는 데 필요한 이자는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대출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부채액이 항상 통화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 아래 WorkableEconomics.com의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채부담이 너무나 커져 차용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지 않으면 통화량이 줄어들거나,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부채 바이러스' 이론의 비판론자들은 부채와 상환할 수

있는 돈 사이의 갭을 ‘화폐의 유통속도’로 메울 수 있다고 말한다. 부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상환되고, 만약 지불금 전체가 대출기관에 전해져 다시 경제로 투입된다면, 그 돈은 채무자들이 다음 달에 갚아야 할 잔금으로 사용가능해진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이 주장의 결함은, 대출금으로 만들어진 돈은 상환되었을 때 사라지며 다시 경제로 투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환금은 만들어진 빚을 0으로 만들고, 그 돈은 사라진다.

‘화폐 유통속도’ 주장에 관한 또 다른 문제점은 대출기관들은 보통그들의 수익을 소비경제로 되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서 두 종류의 경제가 있다.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소비자/생산자 경제가 있고, 돈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은 채 ‘수익’을 쫓는 금융경제가 있다. 금융경제는 근본적으로 실체경제의 기생충이고, 이 시스템 내의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다. ‘페드풋Fed put(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이라는 불문율 정책에서, 중앙은행은 정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 공급량을 조종한다. 그 뜻은 바로 기업 오너들과 투자자들이 근로자와 장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금융경제에 투자할 때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가, 투자자, 그리고 다른 ‘저축자’들은 돈을 주식과 채권에 넣고, 조세도피처에 숨기고, 해외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다. 2018년말, 미국 대기업들은 1조 7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100달러짜리 수표의 70%를 해외에 두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생산자/소비자 경제는 투자와 수요가 부족해진다. 2017년 7월 루즈벨트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What Recovery? The Case for Continued Expansionary Policy at the Fed(무슨 회복?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지속적인 완화정책 사례)”에 따르면,

GDP는 장기 추세와 10년 전 전망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2016년 1인당 실질 GDP는 의회예산처CBO의 2006년 전망치보다 10% 낮았고, 전망대로 돌아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 보고서는 그 같은 성장 부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 수요 불충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임금이 정제되어 있었다. 생산자가 생산에 들어가려면 먼저 소비자의 수요가 있어야 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부채와 상환 가능한 돈의 격차를 정기적인 채무 면제로 해결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출기관은 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그들은 은행가이며, 이들은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는다. 은행가의 의무는 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파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무 격차를 해소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 바로 부채와 관계없이 새로운 돈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후략, 자세한 내용은 지금여기 9/10월호 참조).

뤽 몽타니에의 비입자적 생명관 로렌스 헥트

몽타니에 박사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에서 나노수준으로 필터링을 하고 멸균시설을 거치게 하여 더이상 바이러스가 없게 한 용액을 담은 용기와 맹물을 담은 용기를 7hz가 흐르는 코일의 전자기장 안에 넣어두고 18시간 정도 같이 두면 원래 바이러스의 신호가 재생되고, 더 나아가 옆의 맹물 시험관에도 전달된다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생명이 입자적인 실체가 아니라 파동적인 정보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실험입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편집자 주).

프랑스의 선구적인 바이러스학자 뤽 몽타니에가 비입자적 생명관의 획기적인 증거를 새롭게 내놓았다. 지금까지 보고된 중요한 연구결과들 중에는 박테리아의 DNA 염기서열에서 저주파의 전자기파가 방출되고, 이 파동은 물의 구조를 매개로 뉴클레오타이드(DNA의 구성성분)를 새로운 박테리아 DNA로 조직하는 뚜렷한 능력을 보인다는 내용도 있다.

아마도 지구의 대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슈만공명파Schumann resonance waves를 포함해 전자기파와 생명체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이 연구는, 자라는 식물세포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을 발견한 알렉산더 구르비치Alexander Gurwitsch와 같은 인물들이 1920년대에 시작한 연구를 확장해, 생물학은 물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수준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몽타니에가 검출한 신호들은 인간에 감염되는 대부분의 박테리아 뿐만 아니라, 에이즈바이러스HIV,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비롯한 많은 바이러스들의 속성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금까지 박테리아 때문으로는 보지 않던 몇 가지 흔한 질병이 정말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다. 그 증거로, 살아 있는 박테리아가 든 시험관에서 검출한 것과 동일한 신호들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만성 라임증후군,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다양한 신경장애를 앓는 환자들의 혈장과그 혈장에서 추출한 DNA에서 발견되었다.

1983년 에이즈바이러스의 발견으로 2008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몽타니에 박사는 만성 박테리아/바이러스 감염을 찾아내는 데 이 무선주파수 기법들을 적용하고, 그것을 에이즈와 자폐증을 비롯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활용할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한 항생제 내성 유기체들의 진화라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언젠가는 그런 기법들이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유럽과 서구 국가의 과학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몽타니에는 78세인 현재(2011년) 중국 상하이 자이통交通 대학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게 될 신설 연구소에서 추가연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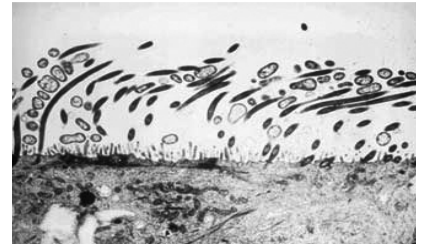
몽타니에의 실험은, 20세기 물리학에서 흔히 제기되는 역설들 안에서는 적절히 다루이지 못했지만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인지 영역 사이의 관계를 소재로 하면 보다 명쾌한 해결책이 발견되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질문들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무생물 영역에서의 경험을 물질에 대한 입자 기반 개념으로 환원하려는 시도에서 생기는 역설들은, 소우주와 대우주의 통합개념 안에서 전자기 방사현상과 고전 “역학”을 포괄한 파동개념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1920년대 에 이루어진 드 브로이와 슈뢰딩거의 연구로부터 이미 알았다.

하지만 그런 통찰을 생명의 영역으로 가져갈 수 없었던 슈뢰딩거는 대신 진화적 발달과 인간의 인지적 발전 둘 다를 특징짓는 명백한 상향의 조직원리를 설명하는 데 엔트로피의 국소적 결여local negation라는 실망스런 개념을 제시했다. 이런 어려움은 20세기를 지나면서 린든 라로슈Lyndon LaRouche에 의해 해결되었다. 라로슈는 노동가치나 시장가치에 대한 온갖 지배적인 이론들에 맞서, 인간의 창조성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주적 발달 원리 혹은 이와 유사한 것이라 보았다. 이 창조성이야말로 인간의 물리적·경제적 발전의 추동력이자 부 또는 가치의 실제 근원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라로슈가 최근 강조한 것처럼, 우주적으로 전파되는 이 창조원리의 특성들은 지구 생명에 뿔어지는 우주 방사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대로 구성된 조사연구들을 통해 인용되어야만 한다. 물론 인간의 지각기관 즉 오감의 완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통상적인 결함투성이 가정을 내다버린다면 말이다.

대기권내 방사와 함축적인 의미의 우주 방사를 포함하는 방사와 생명의 상호작용이라는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몽타니에가 했던 실험들은 지난 세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과학계가 금지하다시피 했던 이 탐구영역에 대한 신선하고 새로운 증거를 몇 가지 내놓았다.

이 주제를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제 몽 타 니 에 와 동료들이 보고한 놀 라 운 실험결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국제마이코플라스마연구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ycoplasma

1 . 여 과 액 에 서 의 재생. 몽타니에의 연구진은 2009년에 발 표 된 논 문 에 멸 균 용 액 에 서

스스로 재생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한 증거를 보고 했다. 4) 배 양 균 에 감 염 된 용 액 을 구 멍 크기가박테리아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작은 여과기에 통과시킨 다음, 멸균을 거치고 실험한용액에서 앞서 감염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이 재생되었다. 300nm의 크기로 작은 세포벽 결핍 박테리아의 일종인 마이코플라스마 피룸Mycoplasma pirum이 첫 실험대상이었다. 마이코플라스마 속屬의 박테리아들은 인간에게서 다수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여러 형태의 항생제에 저항력을가진 아주 작은 박테리아들이다.

마이코플라스마 피룸에 감염된 인간 림프세포들의 배양액을 100nM 혹은 20nM의 투과성을가진 여과기로 거른 다음, 이 배양액을 멸균시킨 뒤 다시 배양했더니 원래의 마이코플라스마가 재생되었다. 무균상태를 검증하기 위해박테리아 DNA를 검출하는 엄밀한 시험을 거쳤으나 음성으로 나온 배양액들이었다. 몽타니에는 “부착분자adhesin 유전자나 16번째 리보솜유전자에 작용하는 특정 시발체primer들을 사용해 PCR(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와 이중 PCR(nested PCR) 검사로 마이코플라스마의 DNA를 반복해서 검출해보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보고한다. 이 결과는 10년 전에 처음으로 관찰되어 몽타니에를 이 길로 접어들게 한 것이었다.(후략. 자세한 내용은 지금여기 9/10월호 참조)

(25차) 삶의 진실 100일 학교

삶의 진실 100일 학교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명과 자연의 진실 – '자연에 맡기기'를 통해 자신이 동물과 식물, 광물의 수준으로 내려가 그들과 하나되고 그들로부터 신호 받는 법을 배우며, 그것을 통해 전체 자연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움직이고 운행하는 이치를 배우고 경험적으로 알아챱니다 : 프로그램 상세내용은 '자연에 맡기기' 참조

▷ 감정과 직관의 진실 – '통찰력게임'을 통해 우리 속에 쌓인 자신도 모르는 트라우마와 감정적 찌꺼기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넘어서며, 더 나아가 심층으로 들어가는 기법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위한 통찰을 얻는 법을 배웁니다 :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통찰력게임 참조

▷ 의식적 본질의 진실 – '깨어있기'를 통해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고, '나'라고 믿고 있는 그 느낌 역시 하나의 '느낌'일 뿐이며, 기타 모든 '의식적 현상'이 하나의 '현상'임을 철저히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자아'라는 틀을 벗어나 '자아를 사용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 프로그램 상세내용은 깨어있기 참조

* 이 모든 과정을 100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교육시간과 일상생활 속 모두에서 배우고 익히도록 합니다. 2박3일이나 1주일의 짧은 시간동안 배워 익힌 기법들은 일상에 돌아가면 묻히기 쉽지만, 100일 학교에서 끊임없는 일깨움과 힌트를 주는 안내자와의 생활을 통해 스스로 해내기 힘든 깨어있는 삶에 대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에 그 삶이 '배이도록' 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도 기존의 관성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함양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점검 및 후속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식사준비와 청소하기, 식물과 동물 기르고 보살피기, 자연환경 가꾸기, 암벽등반하기, 윈드서핑타기, 기타 모든 일을 집중하여 하기, 생각 끊고 하기, 각각 하루의 주제를 가지고 삶에 임하기 등 일상의 과정도 같이 진행합니다.

** 주의 : 직업적인 일이나 기타 외부일은 모두 잊도록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으며, 인터넷이나 TV, 컴퓨터 영화 등도 사용하거나 보지 못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삶과 일상을 통한 의식적 반응을 살피는데 주력할 것이며, 그 의식적 반응의 배경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므로 분명한 마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장소 : 미내사클럽 함양연수원
- 기간 : 2020년 11월 1일 ~ 2021년 2월 15일 (100일)
- 참가자격 : 19세 이상 신체 건강자 (입소 후 환자임이 밝혀지면 퇴소될 수 있습니다)
- 안내자 : 월인 선생 • 정원 : 3명

- 참가비 : 300만원 (36세 이상 프로그램 실비 포함 300만원, 30세 이하 면접후 전액 장학금 가능, 31세 이상 참가청년의 형편에 따라 장학금 지급 가능)
- 계좌 : 농협 053-12-130081 이원규

깨어있기 청년모임

깨어있기 청년모임은 매월 첫주나 둘째주 토요일에 진행되니 관심있는 35세 이하 청년들은 신청바랍니다. 깨어있기를 이수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지만 개념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최소 기초과정은 이수하고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강사 : 월인 선생
- 일시 : 매월 첫주 or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
- 장소 : 서울 에스코 빌딩
- 참가비 : 35세 이하 무료(간식 및 식대가 약간 있습니다)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 마스터 과정

이 과정은 깨어있기 기초, 심화 과정을 마치고 감지가 분명해진 사람으로서 기초, 심화를 4번 복습하고, 깨어있기 워크샵에 도우미로 감지교육을 안내해보기 2회, 관성다루기 1주일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 깨어있기 기초과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마스터' 자격을 주는 과정입니다. 마스터 자격이 주어지면 자신의 지역에서 깨어있기™-워크숍 기초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감지(感知)™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파도의 마스터가 되어 그 어떤 거친 파도라도 즐거이 탈 수 있는 깨어있기의 마스터가 되어보십시오.

특히나 이 그룹은 내적인 깊은 느낌이 다가온 분들과 적극적으로 이 작업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뜻을 합하여 좀더 깊은 공부와, 일부는 깨어있기를 널리 알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모이기로 한 모임입니다. 깨어있기 책의 26개 연습을 모두 새롭고 상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즉, 연습 하나당 하루 전체를 할애하여 아주 세밀하고 심도있는 연습과 그 연습의 의도, 이 연습이 이러한 절차와 순서로 진행되는 이유 등을 함께 공부할 것이며, 이 작업이 완료되는 1년이 지날 즈음에는 깨어있기를 진행할 수 있는 마스터들을 위한 워크북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깨어있기 마스터그룹에 대해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47-2261)

- 강사 : 월인 선생
- 일시 : 깨어있기 기초심화 과정 일시
- 자격요건 : 깨어있기 6회 복습 (기초,심화 복습 4번 참가,

- 워크숍 도우미로 2회 참가), 관성다루기 1주일 과정 수료,
1년간 서울 마스터그룹 모임 참석, 그후 테스트 마친후
마스터 자격 수여
- 수강료 : 과정 시작시 408만원 일시불 (4회 분납 가능)
(깨어있기 재수강 50% 할인가 34만원 X 12회 = 408만원)

(65차)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 기초과정

▷ 의식 - 의식의 해부도 / 우리는 의식의
근본을 왜 보려하는가? / 감각하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 '나'라는 느낌은 어디서
오는가? / 의식 탄생의 과정



▷ 주의 - 주의의 종류 / 물은 달이 아니라
달그림자를 보고 있다 / *확장연습 : 침묵으로 가득 채우기
▷ 감지 - 감지란 무엇인가? / 중성적으로 느끼기 / 분별감
느끼기 * 확장연습 : 에너지 바다 / 감지의 과거성 : 기억 / *
확장연습 : 존재의 중심 찾기

▷ 감각 - 감각 발견하기 * 확장연습 : 확장하기 - 다양하게
감각하기 / 낮설게 보기 /

* 확장연습 : 사물과 접촉하기

준비물 : 『깨어있기』 책 (참가 전에 일독 요망), 작은
화분(종류는 상관 없음), 수첩, 필기구, 세면도구 및 타올

- 강사 : 월인 선생
- 장소 : 미내사클럽 함양연수원
- 일시 : 2020. 10. 16 (금) 오후 2시 ~ 18 (일) 오후 4시 30분
- 참가비 : 60만원 (〈지금여기〉 정기구독자는 59만원), (숙식비
8만원 포함) ※ 홀로스 발기인 및 재수강자 50%할인
(34만원), 수입이 전혀 없는 종교인이나 학생은 지역통화로
50%이상 대체. 단 숙식비는 별도
편집-번역위원은 25% 할인, 단 숙식비 비적용

(65차)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 심화과정

분리된 내가 있다는 느낌, 사물이 있다는 느낌, 무언가 들리는
현상, 다른 것과 차이 나는 어떤 맛이 있다는 느낌은 모두
생명력의 장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패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있기' 강좌를 통해 그러한 과정을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맛보게 될 것이며, '나'란 그저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전체 흐름의 본질은 순수한 생명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나'라는 패턴에서
벗어나 그 패턴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리'에 자신이 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물 : 기초과정을 통해 감지 구분하기

▷ 깨어있기 - 깨어있기란 무엇인가? / 깨어있는 의식느끼기
/ 사물, 생각, 감정, 오감과 함께 깨어있기 / 내가 있음' 느끼기
▷ 동일시 넘어가기 - 기억으로서의 나를 넘어가기 / 동일시
끊기 1 * 확장연습 : 주의와 힘 / 동일시 끊기 2

- 강사 : 월인 선생
- 일시 : 2020. 11. 21 (금) 오후 2시 ~ 23 (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미내사클럽 함양연수원
- 참가비 : 60만원 (〈지금여기〉 정기구독자는 59만원), (숙식비
8만원 포함) ※ 홀로스 발기인 및 재수강자 50%할인(34만원),
수입이 전혀 없는 종교인이나 학생은 지역통화로 50%이상
대체. 단 숙식비는 별도.
편집-번역위원은 25% 할인, 단 숙식비 비적용

(21차) 통찰력게임 마스터교육

■ 통찰력게임 마스터란 통찰력게임 시범게임(3시간)과
워크숍(이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안내자를 말합니다.
(숙련된 마스터는 심사를 거쳐 딜러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참가자격은 자기변형게임딜러, 통찰력게임딜러에
한합니다)

[교육과정 - 제1일]

1. 게임 사용설명 및 시연
2. 내 안의 조연하려는 욕구를 stop하기
3.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느낌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4. 미묘한 내적 신호를 통해 조화로운 세계로 가도록 하기
5. 참가자의 느낌을 얼마나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투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6. 참가자들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고 그 당황한 느낌과
함께있기 - 느낌을 겪어내기
7. 참가자에게 게임에 임하는 절실한 마음을 준비시키기 -
자기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을 회상하고 사용하기

[교육과정 - 제2일]

1. 감지교육:
- 오감 감지교육 - 감지교육 - 서로에게서 감지를 파악하기
2. 참가자의 표정을 미세하게 느끼기
3. 거기서 자신의 감지도 느끼고 파악하기

[교육과정 - 제3일]

1. 참가자를 대하기 - 투명한 거울이 되기
2.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하기
3. 느낌으로 듣기

[마스터 수료 자격]

1. 3일 코스 마스터교육 이수자
2. 미래사의 시범게임에 1회 이상 참가 (마스터교육 시)
3. 미래사의 시범게임을 독립안내 1번, 공동안내 2번 이상 진행.
(단, 코치나 상담사인 경우 안내과정을 보고 횟수를 줄일 수 있음)
4. 이후 자신을 다루고 게임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인정된 사람

- 강사 : 이원규 대표
- 장소 : 미래사클럽 함양연수원
- 참가자격 : 통찰력게임딜러, 자기변형게임딜러
- 일시 : 2020. 10. 30 (금) 오후 2시 ~ 11. 1 (일) 오후 3시 (2박 3일)

(32차) 통찰력게임 안내자교육 레벨 III

※ 이 과정은 통찰력 시범게임을 직접 진행하고 키트 판매도 할 수 있는 '게임 안내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안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 만큼, 사전에 통찰력게임을 접해보고 오셔야 본 과정이 효과적입니다. 필히 통찰력게임 안내자에게 시범게임을 경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찰력게임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특성상 안내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통찰력 시범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심층으로부터 통찰을 얻게 하는 게임의 핵심을 참가자들에게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시간이란 짧은 시간동안 게임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깊이 들어가도록 마음을 여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을 다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익히고 숙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게임사용법을 숙지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안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1. 자기자신을 다루기 :
 - 자신의 감정블럭 제거하기.
심장호흡법을 통해 통찰 얻기위한 준비 갖추는 법
 - 한 개인의 핵심문제를 찾아내기.
자기 감정으로부터 초연하는 법
 -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2. 게임사용법 숙지
 - 오행카드와 태극카드가 의미하는 바를 알기.
 - 카드 셋업 방법. 주제설정 및 검증법.
 - 게임의 핵심 알기. 게임을 끝내는 기준 등 규칙을 숙지하기.
 - 기타 게임 사용법 설명 및 숙지

[참가자격]

1. **코치 및 상담관련 종사자인 경우** : 통찰력 시범게임 참가 1회
(코치 수료증 또는 상담이력 내역서 제출 요망)
2. **일반인** : 통찰력 시범게임 참가 3회

[수료자격] 키트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

- 안내자교육 이수자
- 미래사 시범게임 2번 이상 참가
- 미래사 시범게임 독립안내 2번 (둘째주에 2명이 함께 안내, 넷째주에 2명이 함께 안내), 공동안내 2번(4명이 함께 안내) (단, 코치나 상담사인 경우, 안내과정을 보고 횟수를 줄일 수 있음)
- 이후 자신을 다루고 게임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인정된 사람

[혜택] 교육수료 이후 할인가로 통찰력게임 키트 공급, 각 지역단위별로 독점적 공급, 미래사에 신청이 오면 각 지역 신청자를 연결해줌

- 강사 : 이해영 소장
- 장소 : 참가자에게 개별통보
- 일시 : 2020. 10. 24 (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수강료 : 31만원 (교육비 20만원+키트 1개(11만원)) (이후 키트 안내자 할인가로 제공), 재교육 5만원
- 정원 : 10명 (신규 5명, 재교육 5명 선착순 마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17-18-68366-3 이원규

(14차) 통찰력게임 미니게임 안내자 교육

통찰력 미니게임은 통찰력게임의 쿼 버전으로 새롭게 리뉴얼한 것으로, 3~4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기존의 통찰력게임 키트에서 네 가지 카드만 사용하며, 어울리기-생명력-위기-깨어있기 카드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찰력게임의 핵심을 담고 있으면서도, 더 쉽게 일상의 주제들과 연결되고 빠른 시간 안에 무의식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게임 시범게임에서 시간 관계상 주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내야 해서 아쉬웠던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 강사 : 이해영 마스터
- 일시 : 2020. 11. 18 (수) 저녁 7시~10시
- 장소 : 참가자에게 개별통보
- 참가비 : 5만원 (재교육 3만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래사 홈페이지 www.herenow.co.kr 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 : (02) 747-2261 참가비 입금계좌 : 농협 053-02-185431 이원규